호남대, 코로나·학업 스트레스 해소 청소년 축제 연다

K-pop 랜선 축제·e스포츠대회 전국 고교생 대상…상금 1천만원 청춘의 끼 발산·진로선택 도움

호남대학교가 청소년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심신을 달래줄 전국 규모의 행사를 잇따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호남대(총장 박상철)는 총상금 1000만원을 걸고, 전국의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청춘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진로 선택에도 도움을 주기위한 'K-pop 랜선 축제'와 'e스포츠대회'를 연다.

◇랜선축제 '개꿀! 고교킹'…상금 540만원, 참가영상 12월 19일까지 접수

호남대는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K-pop 랜선축제 '개꿀! 고교킹'을 개최한다. '개꿀'은 '벌통에서 떠낸, 벌집에 들어 있는 상태의 꿀'을 뜻하는 명사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순우리말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원석)'을 뜻하며 한자로는 소밀(巢蜜)이다.

코로나 시대 새로운 축제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도전! 호대킹'이 호남대학교 재학생과 구성원들의 온라인 캠퍼스 축제였다면, '개꿀! 고교킹'은 참여 대상자를 전국 각지의 고교생으로 확장한 'K-pop 랜선 콘테스트'이다.

미디어영상공연학과와 호남대랄랄라스쿨이 주관하는 '개꿀! 고교킹'은 22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참가 희망자는 네이버폼(http://naver.me/592f7Bae)에 참가 신청 후 춤과 노래, 각종 개인기 등 장르를 불문하고 자신만의 특출한 재능과 끼를 담은 1분 내외의 영상 원본(HD급 화질 1280*720픽셀 이상)을 12월 19일까지 이메일(cjbyun@honam.ac.kr)로 제출하면 된다.

입상자들에게는 호남대학교 총장상과 함께 총 540만 원 상당의 상금과 경품이 주어진다.

심사위원들의 1차 심사를 거친 본선 진출팀 영상은 호남대학교 유튜브 채널 '호호티비'에 업로드해 심사위원 점수와 유튜브 조회수, 커뮤니티 투표수를 합산해 최종 입상작을 선정, 12월 30일 '호호티비'와 SNS 공지를 통해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남대학교 홍보실(062-940-5898)로 문의하면 된다.

◇'총장배 고교최강전 e스포츠대회'…12월 5일까지 접수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e스포츠산업의 '넥스트 챔피언'을 가릴 '제2회 호남대학교 총장배 고교최강전 e스포츠대회'도 오는 12월 11~12일 예선을 거쳐 15일 배틀그라운드, 16일 리그 오브 레전드 결승 라운드를 벌여 호남권역 고교 최강팀을 가린다.

참가 대상은 광주, 전남·북 지역 모든 고등학생들로, 같은 학교 재학생 5명이 한 팀을 이뤄 오는 12월 5일까지 고교최강전 디스코드 공식채널(https://discord.gg/FGbcYPydPh)에 접수하면 된다. 종목별 우승팀에게는 상금 100만 원 등 등수에 따라 상금이 지급된다.

호남대는 2020년 국내 4년제 대학 최초로 e스포츠산업학과를 개설한 뒤, 올해 아마추어 구단 '수리부엉이(Eagle Owls)' 팀을 창단해 젊은 세대들에게 신 직업군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차세대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의 '아시아이스포츠교육플랫폼 지원사업'으로 개설된 광주이스포츠교육원 위탁운영을 맡아 초·중·고 대상 이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박상철 호남대 총장은 "코로나 블루와 학업 스트레스에 지친 고교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를 마련했다"며 "고교생들이 잠재돼있는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동신대 메이커스페이스, '찾아가는 창의교육' 동신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사업단은 최근 전남도 창의융합교육원과 여수 여남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창의교육'을 진행했다. 2021년 대학-지역연계·협력 지원사업 일환으로 4차 산업 시대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미래 직업 체험교육으로 진행됐다. 〈동신대 제공〉

혁신학교, 교육대전환 어떻게 할것인가

광주시교육청, 23~25일 아시아문화전당 등서 포럼

빛고을 혁신학교, 교육대전환 어떻게 할것인가?

광주시교육청이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해 광주혁신학교 50여 곳에서 '2021 빛고을 혁신학교 포럼'을 개최한다.

교사와 학생,학부모 등 20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은 '더 나은 학교, 더 높은 가능성'을 주제로 교육대전환기를 맞은 빛고을 혁신학교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코로나19에도 줄기차게 실천했던 삶을 위한 교육과 앞으로 10년, 혁신학교의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첫째날 진행되는 '교육을 보는 시선 6인 4색'에서는 학생과 시민, 교육학자가 각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빛고을 혁신학교와 광주교육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자리에서는 '뉴노멀의 철학'의 저자 김재인 교수(경희대)가 우리사회가 그 자체로 '창의성의 학교'라며 창의성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지, 혁신학교의 대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강의한다.

포럼 둘째날은 광주 전역에서 '생태적 삶을 가꾸는 프로젝트 수업' 등 54개의 주제로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만들고 1000여명의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작은 포럼'이 펼쳐진다.

셋째날에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학교의 적극적 역할을 찾고, 빛고을 혁신학교 향후 10년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공론장이 열린다.

이번 정책 공론장에서는 혁신학교 교사들이 더 나은 혁신학교에 대한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포괄적 협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번 빛고을 혁신학교 포럼은 교육의 변화와 전환의 시기에도 학교교육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며 광주교육의 혁신을 이끌어왔던 혁신학교들의 생생한 현장을 만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시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공동체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삶이 펼쳐지는 학교 현장의 구성원들이 공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여대-뉴질랜드 매시대 학생 교류 업무협약 체결

광 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가 최근 뉴질랜드 매시 대학교와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매시대학교는 1928년 개교한 국립 종합대학으로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을 비롯해 팔머스톤 노스(Palmerston North), 올버니(Albany) 등 세 곳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 160여 개 국가의 3만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30여 개의 학과 중 항공학과, 수의학과, 스포츠 경영학과, 유전공학과 등이 인기가 높다.

양 대학은 어학연수, 문화체험 및 단기프로그램(TESOL for children) 등의 과정을 통한 학생 간 교류에 힘쓰기로 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동강대, 호남권 전문대 최초 육군 3사관학교 여생도 배출

동강대학교 군사학과가 호남권역 전문대학교 최초로 육군 3사관학교 여학생 생도를 배출했다.

또 군사학과는 지난 2011년 학과 개설 후 가장 많은 7명이 육군 3사관학교를 합격해 전국 최고의 군사학과 명성을 재입증했다.

동강대 군사학과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된 2022년도 육군3사관학교(장교과정, 공무원 7급) 선발시험에서 재학생 4명, 21년도 졸업생 3명 등 총 7명이 합격했다. 이번 시험에서 동강대는 2011년 군사학과 창설 이래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조동권 학과장은 "동강대 군사학과는 이번 육군3사관학교 선발시험에서 학과 개설 이후 가장 많은 7명의 합격생 배출했을 뿐 아니라 호남권 전문대 최초 여생도 배출, 1학년 재학생 예비생도 배출 등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직업군인 요람으로 우뚝 서게 됐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